

여행 매너 고민 해결!

# 이시카와 여행 매너 핸드북



## 여행 고민 · 1

가게에서 멋진 상품 발견!

상품이나 매장 내부 사진을 함부로 찍어도 괜찮을까?



시장 탐방 너무 즐거웠어!  
생선과 야채가 깔끔하게 진열된 모습도  
너무 예쁘고 기분까지 좋아져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시장 직원의 불쾌한 듯한 표정이  
살짝 무서웠어요.

(여행자 A로부터)

## 사진 촬영의 스마트 매너

### 촬영 전에 말을 건네어 기분 좋은 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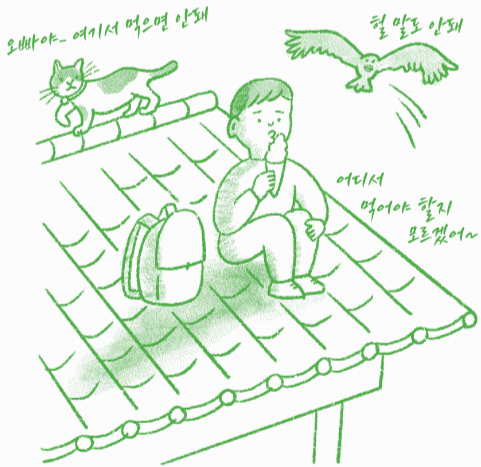
즐거운 여행의 기념사진은 꼭 남기고 싶죠.  
그렇지만 가게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해요.  
계산하기 전의 상품을 찍거나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촬영은 Not Good.  
먼저 가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 여행 고민 · 2

사서 바로 먹고 싶은 현지의 별미!

테이크아웃 음식은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



거리를 걷다가 운 줄게도  
가나자와 명물인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발견!  
바로 사서 먹으며 걷고 있었는데  
현지인들의 따가운 시선에 얼굴이 화끈...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아버리는데  
이걸 어디서 먹어야 하지?

(여행자 B로부터)

## 걸으면서 먹는 스마트 매너

### 걸으면서 먹는 것은 NOT COOL. 먹는 장소를 물어보자.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걷는 '걸으면서 먹방'은 일본에서는 대부분 예절이 없어 보입니다.  
야외에서 먹을 때에는 가능한 한 공원이나 광장의 벤치 등에서 먹도록 합니다.  
먹을 장소가 애매한 경우에는 구입한 가게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고지요.



## 여행 고민 · 3

갑자기 패닉 상태가 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약했던 가게에 갑자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예약했던 레스토랑을 취소하려고  
전화했지만  
일본어밖에 통하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됐는지 걱정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여행자 C로부터)

## 취소할 때의 스마트 매너

### 취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꼭 연락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행에서 해프닝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예약한 가게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합니다.  
음식점은 그날의 고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취소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숙박시설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관광 안내소에 연락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은...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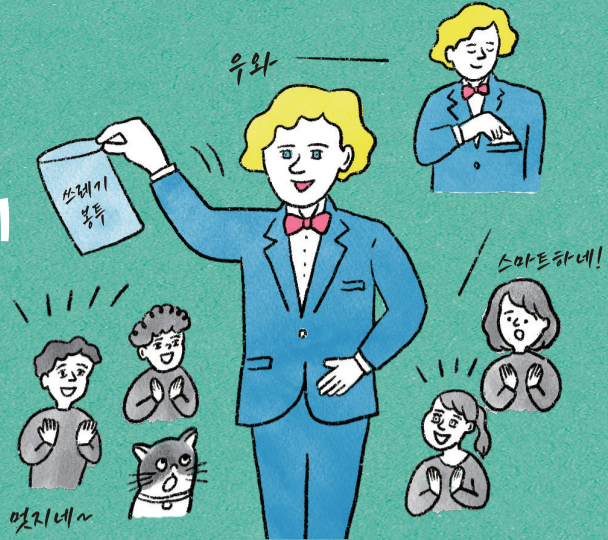


내가 사는 곳에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버릴 수 있어요.  
가나자와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워  
매우 힘들었어요.  
쓰레기통을 더 많이 비치해 줄 수 없을까요?

(여행자 D로부터)

가게에 버리거나 작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아요.

일본에서는 위험물 혼입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로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아요. 구입한 가게에서 버리거나 외출 시에는 작은 쓰레기봉투를 소지하고 다니시고 숙소에서 버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타이네 (제법인데)



화장실 문화의 차이 이해하기

일본 화장실, 변기에 넣어서 버려도 괜찮은 것은?



일본 화장실에서는 사용한 휴지를 변기에 흘려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변기에 휴지를 버릴 수 있다고 듣고 쓰레기까지 같이 버렸더니 막혀버렸어요...

(여행자 E로부터)

변기에는 물에 녹는 화장지만 흘려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건 절대 변기에 흘려버리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위험물 혼입을 방지하는 등의 이유로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아요. 구입한 가게에서 버리거나 외출 시에는 작은 쓰레기봉투를 소지하고 다니시고 숙소에서 버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호야 호야 (그래 그래)



현관에서의 올바른 예절은?

일본 가옥에서의 신발 정리 예의를 몰라요.



일본에서는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이드북을 통해 읽었어요. 문 앞에서 벗고 들어갔는데 벗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른 방법을 알고 싶어요.

(여행자 F로부터)

신발을 벗은 후에는 바닥을 밟지 않도록 합니다. 맨발도 자제해 주세요.

일본에서는 청결 유지를 위하여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은 정해진 장소에서 벗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실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일본 가옥에서는 맨발을 피하고 양말을 신고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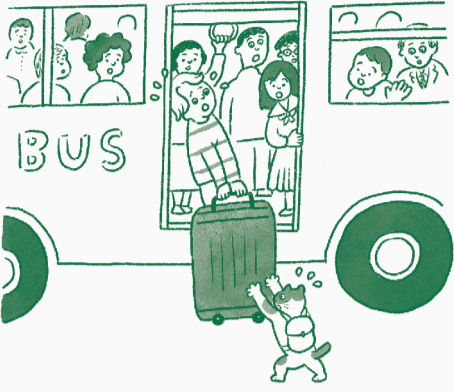


하인만시 (들어와 들어와)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버스가 붙어서 못 탔어! 어떡하지!



큰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만원버스라 타지 못했어요!  
신칸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매우 초조했습니다.

(여행자 G로부터)

짐은 맡기고  
가볍하게 여행합시다!

버스는 주민도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대에  
특히 혼잡합니다.  
커다란 여행 짐을 들고 있으면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의 관광 안내소와 숙박 시설에서는  
수하물 배송 서비스(유료)가 있으므로  
잘 활용해서 빈손으로 가볍게 관광을 즐겨 보세요.



좁은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는데...

어? 차가 오네!? 보행자 전용 아닌가?



관광지 거리에서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생각해서  
가족과 즐겁게 걷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지나가서 깜놀!  
차에 치일 뻔해서  
살짝 무서웠어요.

(여행자 H로부터)

골목길에서도  
차량을 주의하며  
걷자!

이시카와현에는 수백 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역사 깊은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걸로 보기에 보행자 전용 도로처럼 보이는  
좁은 길에도 차가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으로 길을 막으며 걷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거리를 관광하며 산책 중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가려 했는데 가정집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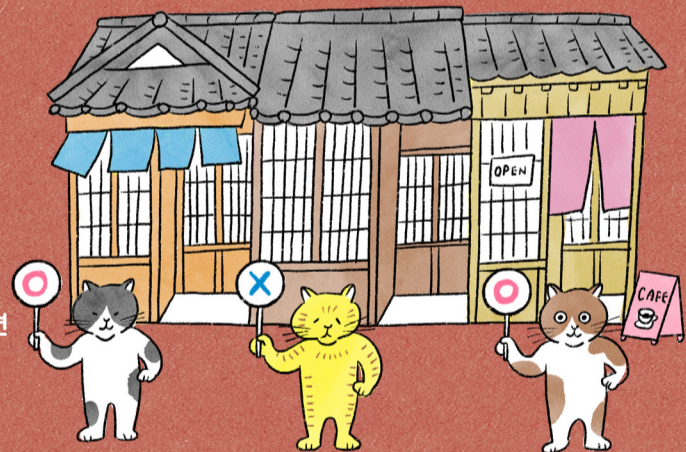


전통적인 건물을 발견하고  
가게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누군가가 살고 있는  
가정집이었어요.  
가게인지 가정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여행자 I로부터)

전통 가옥에는 주거용 건물도 있어요.  
간판 등을 통해  
잘 확인합시다!

전통적인 거리 풍경에는  
가게와 주거가  
혼재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집이라면  
함부로 들어가거나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지 말아  
주세요.



정답!

